‘네 마녀의 날’ 기관 1.2조 팔자, 개인 1.2조 샀다

FOMC 2022년까지 금리 동결
코스피 10거래일 만에 내림세
외인 1201억, 기관1.1조 ‘팔자’
성장주 유리한 환경 지속 예상
코스피 밴드 2050~2350 전망

주가지수 및 개별주식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네 마녀의 날’을 맞아 국내 증시가 1% 가까이 하락했다. ‘네 마녀의 날’이라고 불리는 쿼드러플 위칭데이는 주가지수의 선물·옵션, 개별주식의 선물·옵션 등 네 가지 파생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날이다.

일각에선 외국인의 현물 매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러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금리 동결이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긍정적인 결과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는 계속됐다. 이날 연준의 금리 동결 조치에도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놓고 하반기 증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18.91포인트(0.86%) 내린 2176.78을 기록했다. 10거래일 만에 내림세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01억원, 1조1805억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은 1조2665억원을 순매수했다.

FOMC가 금리 동결 조치를 한 데 이어 국내 증시 향방에도 이목이 쏠린다. FOMC는 10일(현지시간)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0~0.25%)를 동결했다. 여기에 현재 월평균 800억달러 규모의 국채매입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뿐만이 아니다. 2022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별도로 공개한 점도표(dot plot)를 보면 기준금리 전망치의 중간값이 내년 말과 2022년 말 모두 0.1%로 돼 있다. 0~0.25% 수준의 현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뜻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을 생각지 않고 있다”고 확실한 의견을 내비쳤다.

증권가에선 이번 연준의 금리동결을 추가부양에 버금가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기업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비해 주식시장이 빠르게 상승했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자산가격 과열에 대한 어떠한 제어도 없었기 때문이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FOMC를 통해 주식시장이 계속 강세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며 “제로금리가 유지됨에 따라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주에 유리한 환경이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통화 완화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경우 달러화 약세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5원 내린 달러당 1191.20원에 마감했다. 3일째 1100원대를 이어갔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달러화 지수가 이전의 저점 수준도 하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위험자산 선호현상인 ‘리스크온’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돌아오지 않은 외국인 수급에도 증시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자본시장연구원은 ‘2020년 하반기 경제 및 자본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다가올 하반기 회복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코스피 지수 밴드로 2050~2350포인트, 원·달러 환율은 1160~1240원으로 전망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경기순환 국면상 2분기가 경기 저점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며 “다만 하반기 중 대외적인 위험 요인은 국내 주식시장의 조정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자본시장연구원 경제 및 자본시장 전망(기본 시나리오 기준)〉

	2020년	2021년
(경제전망)		
GDP성장률(%)	-0.80%	3.40%
물가상승률(%)	0.40%	1.10%
기준금리(%)	0.25%(2020년 하반기중 1회 인하)	
주식	미국	S&P500지수 3,000~3,400포인트
	한국	KOSPI지수 2,050~2,350포인트
금리	미국	3년물: 0.6%(3Q) → 1.1%(4Q), 10년물: 1.0(3Q) → 1.6%(4Q)
	한국	10년물 0.6~1.2%(하반기)
원달러 환율	1,160원~1,240원	

재건축 탄력에 목동 아파트 호가 3억 껑충

5단지 정밀진단 조건부 통과
신시가지 아파트값도 오름세

목동신시가지아파트 5단지가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하며 6단지 등 목동 아파트 일대가 재건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서울 목동신시가지아파트5단지가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하며 6단지 등 목동 아파트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빠른 목동6단지의 경우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 2차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5단지 안전진단 결과에 신시가지 일대 아파트 호가도 오름세를 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양천구 목동 5단지가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조건부 통과에 성공했다. 2차까지 통과하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양천구청은 지난 5일 목동5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조건부 재건축 결과를 통보했다. 총점은 52.10점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에 따라 A~E등급으로 나눈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30점 이하)을 받으면 곧바로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D등급(31~55점)이면 공공기관의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공공기관의 2차 안전진단까지 통과하면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다.

목동5단지는 지난 1986년 준공돼 올해 34년 차로 재건축 허용 연한(30년)을 충족한 상태다. 총 36동 1848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양정고·한가람고 등이 가깝고 목동 학원가와도 인접했다. 목동 내에서도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이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곳이다.

현재 목동 신시가지 일대 2만6000여 가구 중 목동6단지와 9단지가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고 나머지 단지들도 대부분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상태다. 목동9단지의 경우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통보받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월 안전진단검사를 신청한 7단지는 입찰공고가 진행 중이다.

목동5단지 안전진단 통과에 힘입어 신시가지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2단지(전용면적 95.4㎡)는 지난 9일 17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13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호가만 3억원이 넘게 오른 셈이다.

5단지(전용면적 115.47㎡)는 22억원에 매물이 나왔으며 7단지(전용면적 66.6㎡)는 14억9000만원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1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정연우 기자 ywj964@

1분기 자산운용사 60% 적자
코로나19로 순이익 반토막

300곳 당기순이익 52.3% 급감
펀드수탁고 659조… 1.4% 늘어

올해 1분기 자산운용사의 순이익이 반토막이 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증시가 급락한 탓이다. 운용사 10곳 가운데 6곳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00개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11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5억원(52.3%) 급감했다.

회사별로는 187개사가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회사 비율은 62.3%로 작년 35.3% 대비 27%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 225개사 중 70%가 넘는 158개사가 적자를 냈다. 자기자본이익률(ROE)는 6.1%로 전분기 대비 1.3%포인트 하락하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9.6%포인트나 낮아졌다.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투자일임계약고 기준)은 114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2조9000억원(1.1%) 증가했다.

펀드수탁고는 659조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9조4000억원(1.4%) 증가했다.

공모펀드가 240조9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늘었고, 머니마켓펀드(MMF)와 파생형도 각각 13조7000원, 3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주식형과 채권형은 각각 10조6000억원, 2조3000억원 감소했다.

사모펀드는 41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조7000억원 증가했으며, 부동산(+3조6000억원)과 특별자산(+2조4000억원) 위주로 늘었다.

투자일임계약고는 490조4000억원으로 채권(+3조5000억원) 및 재간접(+5000억원) 투자일임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 대비 3조5000억원(0.7%) 증가했다. /안상미기자 smahn1@

미래에셋대우 모바일 퇴직연금 업무처리 지원

업계 최초 모바일 웹 서비스

미래에셋대우는 퇴직연금 가입법인의 업무 편의성 증대를 위한 퇴직연금 사무담당자 모바일웹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대면업무처리가 어려워지면서 기업 내 퇴직연금 담당자들이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모바일웹으로도 퇴직연금 업무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오픈했다. 언제 어디서든 편하고 빠르게 업무 신청과 접수가 가능토록 했다.

퇴직연금 사무담당자 모바일웹 서비스는 담당자가 업무신청 서류를 스캔할 필요가 없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 후 바로 접수 가능하며 접수된 업무는 매 진행 단계마다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제공돼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래에셋대우 담당자와 바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해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김기영 미래에셋대우 연금솔루션본부장은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맞춰 퇴직연금 업무처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해당 서비스로 미래에셋대우에 가입된 퇴직연금 법인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견본주택 개관

현대건설, 본격 분양 나서

현대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상가 B동을 개발해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견본주택을 오는 12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11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청량리동 235-6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로 지어지며, 전용면적 20~44㎡ 규모의 오피스텔 총 954실과 상업시설 및 공공업무시설(동주민센터)로 구성된다.

특히 오피스텔은 선호도가 높은 원룸형 타입과 최근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분리형 타입으로 구성돼 수요자들의 호응이 예상된다.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조감도. /현대건설

청약일정은 오는 16일 청약접수에 이어 19일 당첨자발표, 22~25일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정연우 기자